


#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올해 소비홍보와 교육 사업에 20억 투입 예정  
닭이야기 HACCP,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닭고기 제공

2010

3

본 정보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육계산업의 새 희망! 육계자조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이 홍 재**  
육계자조금대의원회 회장

2009년 10월 2기 자조금 대의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육계산업도 본격적인 자조금사업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우·양돈·낙농 등 타 축종은 자조금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농가의 결속과 산업의 기반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 납부율이 90%대를 넘어서면서 생산자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육계산업의 경우 20여 년간 계열화사업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생산자의 입지가 약해지고 계열주체회사에게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다. 특히 계열회사는 교묘하게 농가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생산자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농가가 세력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결국 육계사육농가는 산업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계열회사에 내어주고 계열회사의 사육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육계산업의 기형적인 발전은 오늘에 이르러 그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육계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병아리 품질 문제이다. 그동안 계열사에서 병아리의 품질문제보다는 병아리 생산량에 집중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계열회사의 입장에서는 농가와 병아리 마릿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병아리의 품질문제는 농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나쁜 병아리가 농가에 입추되어도 사육성적대로 계산만 하면 그만이고 그 손실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계열화사업이 발전하면서 병아리 품질의 경쟁이 필요 없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어 버렸다. 생산기반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계열사의 도계장은 첨단화 되면서 초현대식 설비로 바뀌었지만 생산농가의 계사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농가들의 계사 중에서 환경 조절계사인 무창계사가 약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와 수입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계약사의 불공정 문제, 농가를 위한 정책개발 부재의 문제, 계열사와 끊임없는 분쟁 등 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생산 농가들은 문제점과 함께 그 해결책도 알고 있었다. 다만 함께 해결하려는 결속력과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해



결의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작년 자조금 교육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농가를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육계산업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자조금을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자조금 사업은 부담자 수혜원칙이라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자조금을 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육계자조금을 계열사에서 납부한다면 계열화사업의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고 농가가 납부한다면 농가가 원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육계자조금은 이미 농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되었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출금도 5원에서 3원(육계 기준)으로 지난 2기 대의원회에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거출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체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지난 3월 12일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계획도 그동안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 되었다. 그중에서도 사육비의 적정성 조사연구,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병아리 이력제 연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은 우리 농가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업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육계산업의 기반은 탄탄하게 변화될 것이다 생각한다.

특히 도 및 시·군 단위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농가들의 의식 개혁과 결속력을 강화해 간다면 산업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특히 일부 계열회사의 보이지 않는 방해는 진요할 정도이다. 최근 들어서는 육계산업은 자조금이 필요 없다거나, 육계자조금은 농가가 아닌 계열회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육계 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자조금 사업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이것은 계열회사가 자조금이 아닌 농가의 결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계열화사업이 농가를 담보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온 상황에서 농가의 자주적인 의견 표출이 계열회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로 육계산업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육계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자조금사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자조금 소식지에 동봉된 납부동의서에 자조금 동참의사를 표시하여 자조금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도계장의 비협조로 자조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은 사무국으로 직접 납부 하셔도 됩니다.

육계산업의 새 희망! 육계자조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 올해 소비홍보와 교육 사업에 20억 투입 예정

## 1차 육계자조금관리위, 2010년 예산안 의결

올해 육계자조금 예산은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등에 총 20억을 투입해 소비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3월 12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제 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은 올해 총 거출금 목표를 20억5천만원으로 계획(2009년도 이월금 5천만원 포함)하고 지난해 실시되지 않았던 소비홍보사업과 성과가 부진했던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각각 전체 금액의 22%와 44%를 배정해 올해 이 두 가지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두 사업을 통해 국내산닭고기의 소비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육계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사연구사업에 3억원(15%)을 배정해 AI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선진국의 계열화사업 현황과 국내 계열화사업을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계열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는 9억원을 배정하고 생산농가의 자진 향상과 생산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 자조금 거출 활동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소비홍보사업의 전체 규모는 4억5천500만원으로 IPTV를 중심으로 한 TV광고에 1억3천500만원,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닭고기 먹는 날 행사’에 2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에 있었던 제 2차 관리위원회 요약보고가 있었고, 김의겸 전 감사가 지난 2월 25일에 실시된 2009년도 육계자조금 감사보고를 발표했으며, 이어 2009년도 육계자조금 조성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서 지난해 육계자조금 조성 계획은 당초 농가거출금 8억원과 정부지원 8억원을 합산해 16억원이 거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출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억9천700여만원(농가거출금 1억3천600여만원·정부지원금 6천100여만원)이었고 이 중 1억2천900여만원이 교육정보 제공 및 대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6천800여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부의안건에서는 2009년도 육계자조금 사업 결산서와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교육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관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준동 위원장은 “정부지원 가산점에서 육계자조금은 교육 부분의 점수가 0점”이라며 “교육 부분에 대한 사업이 없으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고 농가들의 자기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사업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제1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3월 25일 개최

## 2010년 자조금사업계획(안) 의결 및 감사 위촉

제2기 육계자조금 대의원으로 구성된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첫 회의가 3월 25일 대전 농협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대의원 선거 이후 처음 실시 되는 것으로 2009년 제2차 대의원회 의사록을 접수한 다음 2009년도 육계자조금사업 감사보고 발표와 육계자조금 조성 및 사업추진 등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부의 안건으로는 2009년도 육계자조금 결산서와 2010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타사항에서는 2009년 제 2차 대의원회에서 위촉되었던 심순택 대의원이 감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새로운 감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는 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영환

# 전국 육계인대회 개최

일시 : 2010년 4월 중순  
장소 : 전라북도 남원

※ 자세한 일정은 추후 초청장 발송 예정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직원 채용

사업총괄 담당 장관수 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육계자조금사업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했다. 장관수 씨(사진)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조금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 경기도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닭고기

## 학교급식에 사용해 소비자의 사랑 독차지

김성식 경기도 축산тал위생담당

### 경기도 축산의 현주소

영국,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발생하였던 광우병과 이웃 나라 일본에서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 소식이 속출했던 기억도 있다. 우리의 주변 여건은 갈수록 각종 가축질병에 노출되고 있으나, 가축방역의 최선봉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전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로 올해도 큰 이상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전국 가축사육두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240만 인구의 축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축산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축산업의 옹도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축산업의 양적 증가에만 만족하지 않고 축산업을 21세기에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우수축산물 G마크 인증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 경기도 가축사육 현황 (2009년)

단위: 천마리

구분	한우	젓소	돼지	닭
전국	2,634	445	9,584	138,768
경기	265	174	1,830	32,011
비율(%)	10	39	19	23

### 경기도 축산물 유통의 활성화 방안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위해 도내 전 도축장과 우수축산물 가공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하드웨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대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축산물작업장과 가공장 경영자, 소매매업소에 대하여 HACCP 운영 및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G마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도 내로라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심사를 실시하여 29개 축산물(한우 11, 돼지 7, 육계 3, 계란 5, 기타 3)을 선정하고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육계는 마니커, 한강씨엠, 청정계 등이 경기도지역에서 생산하는 닭고기 축산물을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1+등급 이상을 공급하여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사육규모는 경기도에 사육기반을 둔 192농가 상시 사육규모 505만9천수를 확보하고 있다.

G마크 생산 농가는 인증을 받은 후 큰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감시를 통하여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농가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우수 축산물이 제 값을 못 받고 값싼 수입축산물에 밀려 천대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도비 7억원을 투자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해 전국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5개 라디오 방송사에 연간 1천회의 홍보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의 판매 증가와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2009년 G마크 축산물 매출액 2천820억원을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우수축산물 생산, 유통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성과

# “명실공히 한우를 민족산업으로 자리매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황엽**

### 2009년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개황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료가격 상승여파로 인한 생산비의 압박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거출금이 125억6천700만원으로 계획대비 131%가 거출되었고, 정부보조금 82억7천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55억2천400만원을 포함해 총 263억6천900만원을 조성하여, 소비홍보 93억5천만원(56.5%), 교육 및 정보제공 52억5천500만원(31.7%), 조사연구 7억6천600만원(4.6%) 등 총 165억5천700만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8억1천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한우의 소비기반 확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공세와 호주산 등의 시장 확장 전략 속에서 한우가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12년 만에 찾아온 ‘소띠 해’에 걸맞게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소비자에게 한우를 각인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 해맞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치면서 활기찬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소띠 해를 맞아 준비하였던 여러 행사들도 갑자기 발생한 신종 플루 여파로 대규모 야외행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2회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및 추석 소비활성화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되고 최근 2~3년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한 정육형 식당의 보급이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한우 소비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한우의 시장점유율이 50% 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새로운 소비층 개발에 역점을 둠

새로운 소비층 확대를 위한 ‘대학생 한우농가 체험행사’를 진행, 사회 진출예정인 대학생들에게 수제품으로 키워지는 한우의 사육환경을 알리고 한우 브랜드에 대한 정보 등 한우에 대한 지식과 호감을 유도하여 한우 마니아로 키워가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소개하는 ‘축산물 등급제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및 학부모에게 등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기 라디오 프로에 ‘한우 버거’를 협찬, 자라나는 소비층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도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세대 취향에 맞는 한우 캐릭터 용품을 제작·보급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우에 대한 긍정적 호감을 유도하였고, 학교급식 행사를 통한 한우고기 체험 행사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교육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확보

그간 여러 곳에서 시행하던 ‘한우농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기관별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 동영상 제작, 한우 컨설팅 지침서 및 번식우 질병 핸드북 배포를 통해 농가 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농가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전방위적 홍보로 소비자에게 어필**

국민배우로 불리는 최불암 씨를 모델로 선정, 한우의 우수성(맛·위생·안전)과 수입산과의 차별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TV광고를 통해 한우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민족산업으로의 가치 형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PPL(간접광고)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온·오프라인 PR활동 등을 통한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중점을 기울였던 TV매체 광고와 더불어 신규 소비층 확대를 위해 청소년과 젊은 층을 겨냥한 인터넷 광고를 확대 실시하여 그간 한우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젊은 소비층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우려돼 구제역 발생초기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입소문 홍보를 통한 ‘구제역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한우산업,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민족산업으로**

한우를 알리기 위한 TV광고 등 상업적 홍보의 틀을 벗어나 국민과 함께 하는 한우산업으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한우 나눔행사’를 전국에서 실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2년 만에 돌아온 소띠 해를 맞아 신년 해돋이 행사를 전국에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우에 대한 디자인 및 사진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한우문화 공모전’도 실시해 한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한우 소비층 조성과 한우전문점 및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점 교육을 실시, 생산과 소비의 양축을 확고히 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렵지만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조금사업을 전개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든든한 기반 마련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의 첫 단추인 농가 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충분한 재원 마련을 통해 그간 아쉬웠던 분야들을 생산자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자생력이 만들어지는 시발점 또한 자조금 거출에서 시작됩니다.

자조금 납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결코 거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우자조금도 첫 해에는 60%대의 낮은 거출률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한우농가, 도축장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 유도를 통하여 작년 말에는 약 98%에 이르는 거출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조금 거출률 100%를 달성한 축종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조금 거출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화백제도’와 같이 만장일치를 통한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 첫 해는 일부 농가 및 유통업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거출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농가 참여 독려와 자조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육계자조금이 날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HACCP인증과 전염병 예방

육계농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지수가 경쟁력으로 통하는 상황에서 전염성 질병 발생은 육계 생산의 최대의 걸림돌이다.

뉴캐슬병(ND), 조류인플루엔자(AI), IB, 전염성 F낭병(IBD), 콕시듐, 괴사성 장염 등 다양한 질병은 사육 기간 내내 생산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육계 산업은 사육성적 개선을 우선으로 한 사육일령 단축, 사료효율 향상 등의 품종 개량과 바이러스성 질병의 변이, 무항생제 사육에 따른 세균성 질병 발생 등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장은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천수 담처럼 질병이 없이 혹은 좋은 병아리 분양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HACCP 인증과 질병 예방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농장이 '가축사육단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비하고 지정받고 있다. '가축사육단계 HACCP'은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농장의 운영방법을 필요로 하며 HACCP 12절차를 기반으로 한 기준서, 실 운영을 위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따라서 제3자라도 농장의 명확한 관리와 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차단방역 관리, 농장시설 관리, 농장위생 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 관리, 질병 관리, 반입·출하 관리의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그럼 질병과 연계된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프로그램 6가지 전체가 질병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차단방역 관리는 출입자, 차량, 반입물품에 대한 방역 관리와 기록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둘째 농장시설 관리는 외부 차단을 위한 소독시설, 반입창고, 사육환경, 축분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농장위생 관리는 농장운영자의 관리, 폐사축, 구서·구충 관리, 세균성(SE) 감염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넷째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 관리는 육계생산의 기본 재료인 사료와 물, 질병 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질병 관리는 백신, 기생충 구제, 병아리의 품질, 수의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반입·출하 관리는 병아리 입식, 출하에 대한 정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준경

네오바이오(주) 인증사업부

상기 열거한 6가지 프로그램은 안전, 위생적인 육계생산을 위한 예방 관리이며,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악성 전염병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 예방을 위한 HACCP 적용 사례**

선행요건프로그램은 질병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운영 절차가 있지만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는다면 아래와 같다.



차량소독시설



방명록



울타리(경계)



차단시설

항목	결과
염색	양성
배양	양성
PCR	양성

살모넬라(SE)분석

순번	약품명	유효기간	총액	단위	잔액	입고	출고	비고
1	Amoxicillin	11.20	1000	병	7			
2	Formoxone	11.2	1000	병	10			
3	Cloroxin	11.5.18	1000	병	1			
4	Zidovudine	11.6.12	1000	병	1			
5	Amoxicillin	11.9	1000	병	1			

약품 기록부

항목	수량	단위	비고
사료	1000	kg	
약품	10	병	
수확물	5000	kg	

사양기록부

구분	항목	비고
차단방역	차량소독기, 방명록	외부 차량, 사람 유입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 관리
	울타리	HACCP 실행 지역을 표시
농장시설 관리	차단시설	외부로부터 농장 내 유입을 차단
농장위생 관리	살모넬라(SE) 분석	농장의 위생 안전성 파악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 관리	약품기록부	예방(백신), 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반입/출하 관리	사양기록부	

프로그램 준수는 질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지 100% 완벽할 수 없는 것임을 명기해야 한다.

특히 접촉에 의한 질병 전염은 프로그램 준수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상재/전염성으로 발생 원인이 나뉜 바이러스 질병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HACCP 지정 농가들은 HACCP의 효과 중의 하나를 질병 예방으로 꼽고 있으며 기록 관리를 통해 약품의 오남용과 질병으로 파생되는 생산성 하락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가축사육단계 HACCP’는 나중에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닌 농장의 필수사항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소독과 위생관리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많은 HACCP 지정 농가들은 HACCP의 효과 중의 하나를 질병 예방으로 꼽고 있으며 기록 관리를 통해 약품의 오남용과 질병으로 파생되는 생산성 하락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봄의 불청객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닭고기 요리

## 솔잎향 백숙 & 신초교탕

그 어느 해 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은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향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춘곤증이란 이겨내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다. 점심을 먹은 직후 천근만근인 눈꺼풀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몸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 요리가 제격일 듯 싶다. 오늘 저녁 닭을 구입해 가족들과 함께 닭요리를 해먹고 나른해지기 쉬운 봄을 건강하게 맞이하자.



### 솔잎향 백숙

#### 재료

닭 1마리, 황기 1뿌리, 은행 10개, 대추 5개, 밤 5개, 감초 3쪽, 마늘 1통, **약초 국물용**(두충 20g, 엄나무 20g, 가시오가피 20g, 파뿌리 30g, 마른고추 5개, 불린 흑미찹쌀 1컵, 불린 녹두 1/2컵, 솔잎)

#### 만들기

- 1 닭가슴살은 잘게 다져 후추, 청주를 뿌려 놓는다.
- 2 두충, 엄나무, 가시오가피, 파뿌리, 홍고추 등을 푹 삶아 체에 받친다.
- 3 ②의 약초 삶은 물에 닭을 넣고 황기, 은행, 대추, 밤, 감초 등을 넣어 닭이 절반 가량 익도록 끓인다.
- 4 ③에 찹쌀, 녹두, 흑미찹쌀, 마늘, 솔잎을 넣고 푹 익힌다.
- 5 닭에 약물이 베어들어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운다. 큰 접시에 솔잎을 깔고 그 위에 닭과 다른 재료를 얹는다. 찹쌀밥은 그릇에 따로 담도록 한다.



### 신초교탕

#### 재료

닭 1마리, 호박 1/2개, 표고버섯 4장, 도라지 80g, 당근 1/3개, 감자 2개, 미나리 40g, 마늘 3쪽, 생강 1쪽, 소금, 후추

#### 만들기

- 1 닭은 깨끗이 손질하고 얇게 썬 생강, 마늘과 물 10컵을 부어 푹 무르게 삶아 건진 다음, 살은 찢어 놓고 국물은 면보에 기름기가 없게 받쳐 놓는다.
- 2 감자, 당근, 호박은 각두기 모양으로 썰어놓고 표고버섯, 도라지(도라지는 소금을 넣고 주물러 씻어 쓴맛을 제거함), 미나리는 잘게 다져 놓는다.
- 3 ①의 닭 국물에 찢은 닭살과 ②의 재료를 함께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 후 맛이 어우러지게 푹 끓여 준다.

#### Cooking Tip

신초교탕을 두툼한 뚝배기에 고기와 야채를 적당히 담고 그 위에 국물을 붓고 파를 얹으면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 HACCP,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닭고기 제공

## 육계자조금관리위, 올해 HACCP 교육 실시 예정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육계농가의 HACCP 교육사업비를 매정하며 HACCP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닭고기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HACCP란 과연 무엇이고 농가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HACCP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 육계농가 HACCP 도입의 필요성

육계농가에서 HACCP를 도입하게 되면 닭고기 생산과 관련한 위해요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의 생산환경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주도적인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하다. 비록 HACCP 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 보완 및 집중적 관리를 위한 많은 인력과 소요 예산중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원의 감축, 관리요소의 감소 등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도 모가 가능해진다.

### HACCP에 대한 충분한 교육 선행되어야

HACCP 인증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 이득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를 비롯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증마크는 믿음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육계농가에서의 HACCP 인증제도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HACCP 교육을 추진하는 까닭이다. HACCP교육을 통해 닭사육농장에서 HACCP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농가들이 HACCP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닭고기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HACCP란 무엇인가?



HACCP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일명 '해썹'이라고 불리우는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통칭하고 있다. HACCP는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 관리 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입니다.

HACCP는 1959년 우주개발계획 중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美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식품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후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식품안전성 확보수단으로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하고, 1995년 WTO/SPS 협정이후 교역식품에 HACCP를 적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국은 서둘러 HACCP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축산물에 대한 HACCP법령을 신설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한 이후 해마다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NEWS

## 세계 닭고기 1인당 소비량 쿠웨이트 최고 우리나라 13.7kg의 5.5배 더 소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쿠웨이트로 우리나라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세계농업 112호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작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평균 72.5kg로 2008년에 이어 세계에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슬람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문화가 존재해 상대적으로 닭고기의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쿠웨이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5년 42.8kg에서 2006년 46.7kg, 2007년 50.7kg, 2008년 65.9kg, 2009년 72.5kg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5년만에 30kg이 증가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쿠웨이트와 같은 이슬람문화권인 아랍에미레이트로 1인당 평균 61.7kg을 소비해 2위를 차지했고,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닭고기 생산국인 미국은 1인당 평균 42.6kg의 닭고기를 소비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41.3kg), 브라질이 5위(39.4kg)에 랭크됐다.

아랍권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홍콩, 대만의 닭고기 소비량이 두드러졌다. 말레이시아는 국민 1인

당 평균 37.8kg를 소비해 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홍콩이 36.9kg 대만이 25.0kg을 소비해 순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3.7kg, 일본은 15.4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닭을 많이 소비하는 쿠웨이트와는 5.5배, 아시아권의 홍콩보다는 3배 정도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중국은 1인당 평균 닭고기 소비량이 9.1kg로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량을 보였다.

국가별 닭고기 1인당 소비량

국 가	2009년	2010년(전망)
쿠웨이트	72.5kg	71.7kg
아랍에미레이트	61.7kg	59.5kg
미국	42.6kg	43.3kg
사우디아라비아	41.3kg	41.6kg
말레이시아	37.8kg	37.3kg
홍콩	36.9kg	38.1kg
★한국	13.7kg	14.0kg
중국	9.1kg	9.4kg

※ 2009년은 잠정치이며, 2010년은 전망치임.

## 미국인, 닭고기 소비 늘고, 쇠고기 소비 줄어 100년간 식품소비 변화...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미국인들의 식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0년 사이 닭고기와 치즈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쇠고기는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한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1909년 50파운드(약 23kg)에서 1970년대에 90파운드(약 41kg)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60파운드(약 27kg)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닭고기 소비량은 1909년 10파운드(약 4.5kg)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쇠고기 소비량을 넘어서기 시작

했다.

미국 양계협회 대변인 리처드 로브는 닭고기 소비증가 원인을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양계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시장조사연구기관 NPD그룹 해리 발저 박사는 닭고기 수요의 급증 원인을 ‘가격 경쟁력’에서 찾았다.

그는 “닭고기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육류 및 단백질 공급원”이라면서 “최근 30년간 미국 요식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치킨메뉴의 증가”라고 밝혔다.

# NEWS

## 새로운 AI 유전자 진단키트 개발 검역원, 올 하반기 일선 기관 보급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가 올 하반기 쯤에는 일선 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에 새롭게 개발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키트를 시범사업용으로 일선 가축 방역기관에 제공하고, 지난 3월 9일 전국 시·도 방역기관 진단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키트의 기본원리, 유전자 진단키트를 이용한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새로운 AI 진단키트를 시·도 방역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일치율, 검사능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에 일선 가축 방역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진단키트는 4종의 AI(type A, H5, H7, H9)를 진단 할 수 있으며 검사에 5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은 이를 통해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AI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심해 진단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확진하기에는 어려우며,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검역원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오는 6월 말에 시범 보급된 진단키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식보급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 닭고기에 ‘방사선 살균’ 허용되나? 원자력연구원, 닭고기 등 육류에 ‘방사선 살균’ 허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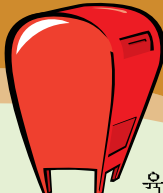
닭고기를 비롯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식품에 방사선을 쬐어 살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소시지·햄·건어포류 등의 식품에 방사선의 일종인 전자선을 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감마선만 허용돼 있어 종류를 규제하지 말고 다양한 방사선을 쬐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방사선 살균은 열을 가하지 않고 감마선(방사선의 일종)을 쬐어 세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미 환자용 음식과 된장·고추장 분말, 고춧가루·홍삼 등 26개 식품에 허용되고 있다.

이번 방사선 살균 허가 요청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번에는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계농가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육계자조금소식지는 모든 육계농가들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AI를 비롯한 각종 질병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사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 소식지 담당자앞  
(우편번호 137-871) e-mail: i727@naver.com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철새 도래시기(3~4월, 10~12월)는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차단 방역과 소독이 필요합니다.

## AI 전파경로



- ① 운반차량(농장, 도축장, 사료업체, 분뇨처리업체 등)
- ③ 기타(축산도구, 장화 등)

- ② 출입자(치료, 동물약품, 사료 공급 및 가족매매 등)
- ④ 감염된 철새의 분변

AI의심축 발견 즉시 1588-4060 · 9060 / 1666-0682로 신고합니다.